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세계 물류시장, 2024년까지 15조 규모로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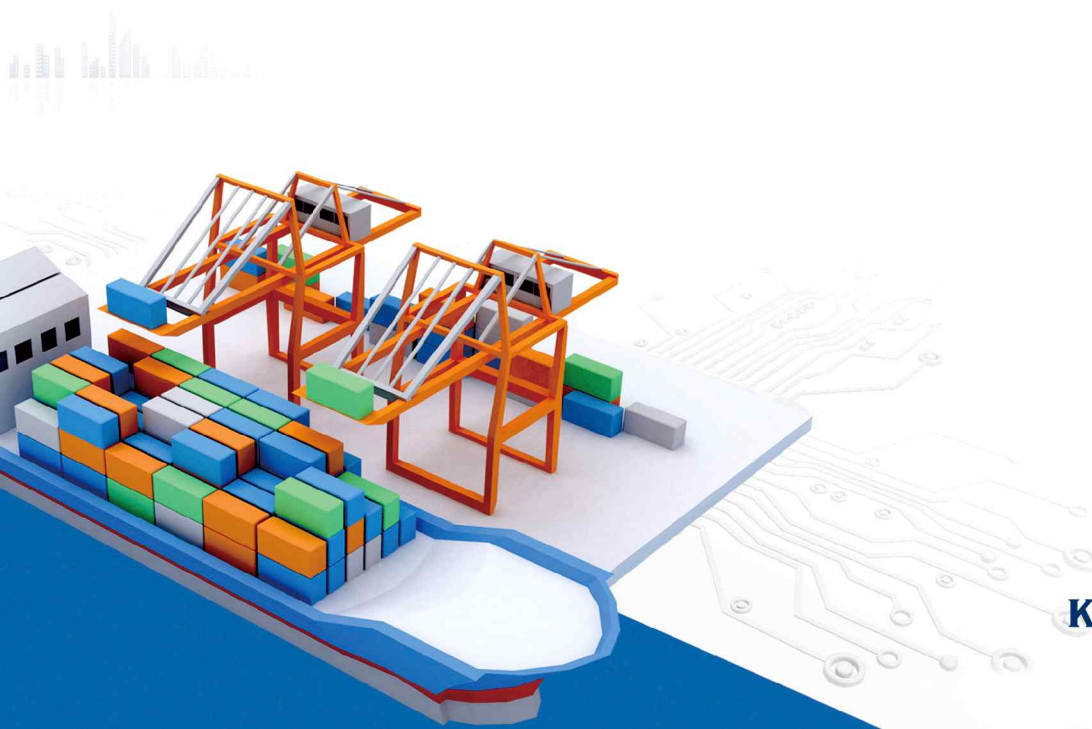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컨테이너선 S&P 거래량 증가
2. 아마존, 물류사업 확장 동력 확보
3. DP World社, 인도네시아 TPS와 재계약 포기 예정
4. 중국 신흥 도시 물류시장 성장 가속화
5. CMA-CGM의 22,000TEU 초대형 '컨' 선 발주로, 주요대형 선사의 초대형 '컨' 선 확보 경쟁 지속
6. 북미 무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프린스 루퍼트(Prince Rupert) 항만

명사 스피치

"...Blockchain has the potential to reduce inefficiencies and gaps within the supply chain, promote more cost-efficient transactions and facilitate the continued growth in world trade..."

Mr Tan Chong Meng
Group CEO of PSA international
(2017. 9. 15. / PSA Press Releas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세계 물류시장, 2024년까지 15조 규모로 성장 예상

2014~2024년 세계 물류시장 규모

(단위: USD Billion, Billion Ton)



자료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Logistics Market: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16-2024*, 2017.

- 세계 물류시장 규모가 2024년까지 약 15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계 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7.5%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기준 세계 물류시장의 규모는 약 8조 7천억 달러 수준임
- 이러한 성장세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동반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또한, 보고서에서는 3PL 서비스 및 기술 발전을 통한 비용 절감도 세계 물류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힘

참고자료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Logistics Market: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16-2024*, 2017.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컨테이너선 S&P 거래량 증가

- 2017년 8개월 동안의 중고 컨테이너선 거래량은 75만 TEU로 2015년 거래량인 64만 TEU를 조기에 넘어섰음
 - 2017년 3월 한달간 거래량은 2016년 전체 거래량의 40% 수준임
 - 또한 2017년 8개월 동안의 중고 컨테이너선 거래량은 2016년 전체 거래량보다 60% 이상 증가했음
- 올해 일부 선형의 컨테이너선은 중고 거래가 안정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3,000~8,000TEU급 중고 컨테이너선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임
 - 구 파나마кс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3,000~8,000TEU급 중고 컨테이너선 거래량은 40만 TEU로 2016년 거래량인 12만 TEU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한편 8,000TEU 이상 중고 컨테이너선 거래량은 18만 TEU 수준임
 - 이같은 현상은 1995~1999년의 중고 컨테이너선 연평균 거래량 97,000TEU 중 86%가 3,000TEU 미만의 선형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임
 - 2000~2009년에도 중고 컨테이너선 연평균 거래량 22만 TEU 중 60% 이상이 3,000TEU 미만 선형의 거래였음
 - 2010~2013년에는 연평균 거래량 30만 TEU 중 50% 가 3,000TEU(평균 2,165TEU) 미만 선박, 2014년 이후에는 연평균 거래량 59만 TEU 중 평균 선형은 3,200TEU임
- 이러한 기록적인 수준의 컨테이너선 S&P 시장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함.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과 한진해운 파산이 컨테이너선 S&P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17년 판매된 중고 컨테이너선의 23%가 한국 선박임.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박 S&P 활동을 지원했으며, 2013년부터 판매된 중고선 거래량의 53%가 독일 소유 선박이었음
- 올해 남은 기간동안 지금과 같은 컨테이너선 S&P 거래가 지속된다면 총 거래량은 연초 전세계 컨테이너 선대의 6%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이는 2000~2016년 연평균 3%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며 벌크 및 유조선 S&P 시장 규모와도 근접하게 됨

■ 참고자료 : hellenicshippingnews.com, 2017.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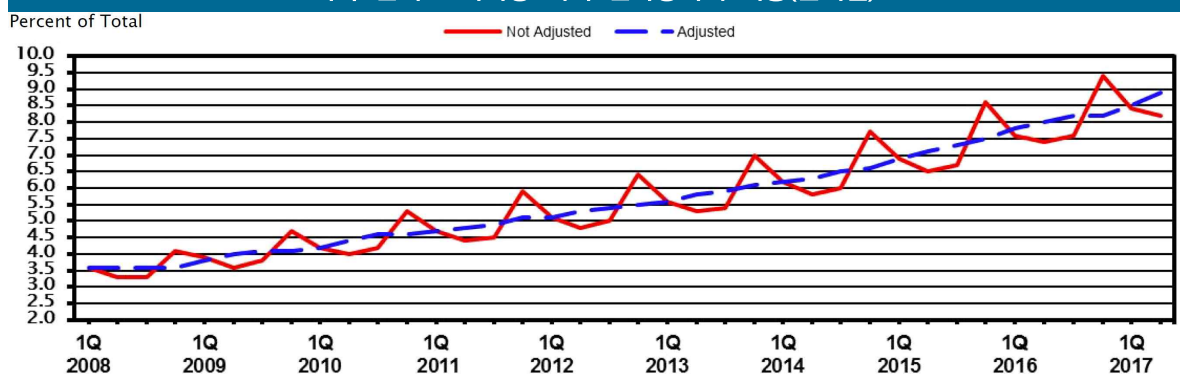
박성화 전문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

아마존, 물류사업 확장 동력 확보

- 지난 수년 간 전 세계의 전통적인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는 아마존社の 거대한 물류사업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임
 - 아마존의 “고객 경험”에 대한 꾸준한 연구는 물류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 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물류 능력 확보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비록 아마존이 드론, 로봇 및 기타 기술과 물류 전략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럭, 기차, 선박, 비행기 등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운송 수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통망(운송수단, 물류창고 등)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마존은 증가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수를 더욱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만 연간 10억 개 이상의 소포를 배송하고 있으며, 특히 Amazon Prime 주문은 정시 배송을 위해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미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3,949억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미국 전체 소비시장의 8.1%에 달함
 - 2017년 상반기 매출이 16.3% 증가함에 따라 아마존은 유통시스템의 향상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
- 아마존은 일요일 배송 및 주 7일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24개의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 미시간 주에 위치한 셸비(Shelby) 센터는 내년에 개장할 예정임
 - 아마존은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신들의 삶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일요일 배송 서비스는 수요 증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함

미국 전체 소비시장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분기별)



자료 : U.S. Census Bureau News

참고자료 : www.joc.com, 2017.9.15.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



DP World社, 인도네시아 TPS와 재계약 포기 예정

- 두바이 소재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사인 DP World社は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위치한 PT Terminal Petikemas Surabaya(TPS)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임
- TPS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DP World社は 2019년 TPS와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임
- DP World社は 그룹 총 물동량 8,500만 TEU 중 인도네시아 TPS에서 210만 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TPS에서의 운영 철수는 그룹에 중대한 재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DP World社の CEO인 술탄 아메드 빈 술람(Sultan Ahmed Bin Sulayem)씨는 “그동안 DP World社は 인도네시아 터미널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항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등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운영 계약 갱신 조건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회사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 DP World社の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쿠알라 탄중(Kuala Tanjung) 및 벨라완(Belawan) 지역의 항만개발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상을 한 이후에 나온 결정이라 의외성이 있음



자료 : gulfbusiness.com

■ 참고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7.9.18.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중국 신흥 도시 물류시장 성장 가속화

- 중국 내 중산층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물류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지난 몇 년간 중국 내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와 함께 주요 투자자들의 물류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중산층의 소매품 및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구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 물류센터 및 배송센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중국 내 물류부문 수요 호황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매품에 대한 지출 증가가 주요 원동력이 됨
- 한 때 베이징, 상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내 주요 대도시에서 집중되었던 중산층의 구매력이 점차 여러 개의 신흥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JLL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소매 매출이 1,000억 위안을 넘는 도시가 2000년 기준 겨우 3개에 불과한 반면에 2015년은 약 25배 증가한 76개의 도시에서 연간 소매 매출 1,000억 위안을 돌파했음
 - 또한 Morgan Stanley Bank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총 소비액이 2016년 4조 4천억 달러에서 2030년 9조 7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신흥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신흥 도시의 구매력 성장이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되고 있음
 - 현재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기존 대도시의 경우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토지가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구매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신흥 도시가 혼잡도가 높고 토지세가 비싼 대도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중국 내 신흥 도시는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내 물류기업들은 대도시 인근의 위성 도시를 대상으로 유통 허브 센터 및 대규모 물류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 양쯔강 삼각주 지역을 사례로 살펴보면 물류중심이 상하이와 주변 도시에서 난징, 쑤저우 등 제조시설과 구매력을 동시에 겸비한 신흥 도시로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여러 신흥 도시가 중국의 물류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www.theinvestor.jll, 2017.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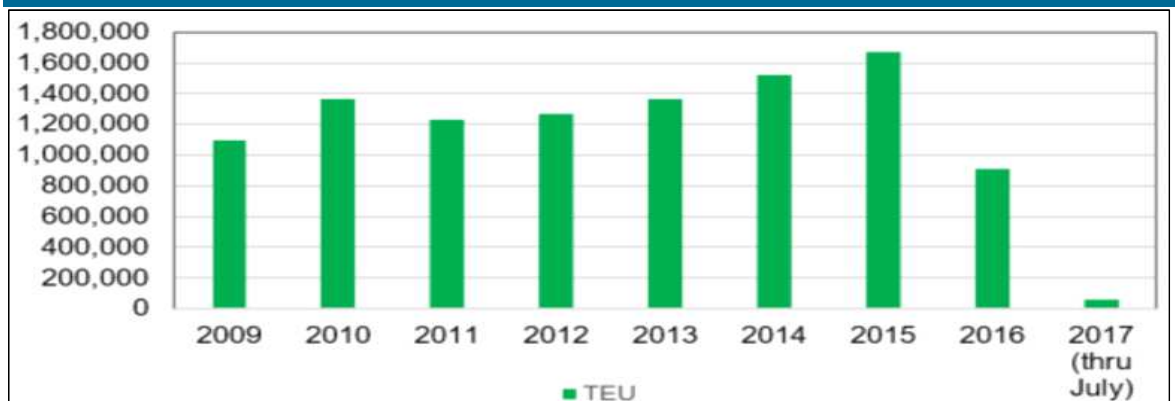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CMA-CGM의 22,000TEU 초대형 '컨' 선 발주로, 주요대형 선사의 초대형 '컨' 선 확보 경쟁 지속

- 지난 9월 15일 세계 3위 선사인 프랑스의 CMA-CG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9척(1척당 약 1억 4,000만 달러)을 발주했으며, 2019년 말 첫 번째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할 예정임
 - CMA-CGM의 신규 발주선박 9척은 중국 조선소 2곳(상하이 와이가오차오 조선소, 후둥중화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며 현 시점을 기준으로 22,000TEU 급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박이 됨
 - CMA-CG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발주는 최근 시장회복 및 인수합병 등으로 선사의 경영 성과가 개선된데 따른것임
 - 최근 CMA-CGM은 Ocean Alliance로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 APL 인수, 브라질 국내 컨테이너 하역 기업인 Mercosul 인수를 통한 브라질 내수시장 본격 진출 등 전략적 인수합병을 활발히 수행 하면서 경영 성과를 크게 개선했음(CMA-CGM 올해 2분기 순이익은 약 2억 1,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의 성장을 기록, 또한 주요운항 노선의 해상운임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당 평균 매출이 약 12.5% 증가)
- 초대형 '컨' 선 발주는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글로벌 대형 선사 간 초대형 컨테이너 선 확대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대형선사간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발주 경쟁[CMA-CGM 22,000TEU급 9척, OOCL 20,143TEU 급 6척(17년 5월 1척 인도 완료), MSC 22,000TEU급 11척(예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신조선가가 낮아 초대형선박 확보 시 규모의 경제에 의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임

전 세계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발주 현황



자료 : www.joc.com

- 그러나, 이러한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발주 경쟁은 글로벌 대형 선사 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개별 선사 차원의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들은 현재 공급과잉이 심한 해운시장 환경에서 향후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급증할 경우 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운임 상승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머스크의 CEO인 Soren Skou씨는 현재의 석유가격 수준 감안 시 초대형선박을 발주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어 향후 새로운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발주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MSC 및 하판로이드 경영진 역시 향후 신규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발주 보다는 용선시장의 활용 및 기존 선박의 개조를 통해 선복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CMA-CGM의 경우 금번 22,000TEU급 컨테이너선박 발주 전까지 경쟁 선사들에 비해 18,000 TEU 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은 전무 했음

■ 참고자료 : www.maritime-executive.com, 2017.9.15. / www.joc.com, 2017.9.15.

이주원 연구원

051-797-4667, peterlee@kmi.re.kr

북미 무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프린스 루퍼트(Prince Rupert) 항만

- 2017년 8월 29일 프린스 루퍼트 항만의 확장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음
 - 이번 프로젝트는 두바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DP World의 야심찬 글로벌 확장 계획의 일환이며, 2년간 2억달러를 투자했음
 - 확장 프로젝트로 연간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135만 TEU까지 향상됨
 - 또한 Malacca-max 크레인 3기의 추가로 대형 컨테이너선의 화물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DP World의 CEO 술탄은 프로젝트 완성 축하연설에서 북미 지역의 주요 무역 원동력인 프린스 루퍼트 항만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힘
 - 덧붙여 이번 투자는 항만 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라고 함
 - 다음달 부터 북미 지역의 해산물 및 양식업 제품은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마켓으로 운송될 예정임
- 10년 전 공동목표는 '프린스 루퍼트 항만을 구하자'임
 - 펄프 공장의 폐쇄와 어류 개체수 감소로 대부분의 목재 및 농산물의 물류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음
 - 그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항만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2007년 컨테이너 16만TEU에서 2016년에는 73만TEU까지 확대되었음
 -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 노동자, 경영자, 사업체와 정부 간 협업과 프린스 루퍼트 항만을 구하자는 공동의 목표에서 나오게 된 것임
 - 최근에는 북미지역의 주요 무역 관문 중에서 프린스 루퍼트 항만을 중요한 항만 중 하나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음
- 이 프로젝트는 개발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토지, 물 등의 자원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했음
- 현재 프린스 루퍼트 항만은 7개의 정기선 노선과 주당 15회 이상의 철도 노선을 통해 막힘 없는 물류의 실현이 가능하며, 북미 무역을 이끌어가는 허브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임

■ 참고자료 : biv.com, 2017.9.18.

박상원 연구원

051-797-4919, psw6745@kmi.re.kr

